불교 좋아하게 했더니 출가 길 열렸다



파도 명상과 탑돌이, 논산훈련소 수계법회, AI 체험 등 청소년들은 '선연(善緣)'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경험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몸으로 익히고 삶 속에서 불교를 만난다. 선연은 체험을 넘어 신행과 출가로 이어지는 미래 불교 인재 양성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호감이 관심으로, 관심이 신행으로

5. 소년출가가 늘고 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출가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을 좋아하게 만들면 길은 스스로 선택합니다."

소년출가가 다시 한국불교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출가자 감소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조계종은 종립학교와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미래 승가를 키우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사례가 전국 불교종립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청소년 템플스테이 '선연(善緣)'이다.

선연은 단순한 불교 체험 프로그램이 아니다. 불교를 친숙하게 경험하고 신행을 생활 속에서 이어가며 대학 불교학생회와 군승, 나아가 출가까지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생애주기형 포교 모델'이다. 출가를 목표로 학생을 모집하기보다 불교를 좋아하는 청소년을 길러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선연은 권진영 당시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영석고등학교 교법사(현 선화여고 교장)가 기획해 2023년 첫발을 뗐다. 전국 불교종립학교 학생들이 또래 불자 공동체를 만들고 함께 수행하며 성장할 수 있는 장을 만들자는 것이 출발이었다. 이후 6기까지 이어지며 참가자는 170여 명으로 늘었다.

선연 프로그램은 기존 청소년 수련회와는 결이 다르다.

경주 황룡원 일대에서 열린 1기에서는 열암곡 마애부처님 답사와 동국대 탐방, 사찰음식 체험, 황룡사 탑돌이 등을 진행했고 이후에는 생성형 AI와 불교, VR과 기후위기, 드론 체험, 대학 불교학생회 탐방, 청소년 K명상, 군승 체험, 서핑 템플스테이 등 청소년의 관심사를 적극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진화했다.

권진영 교장은 불교를 '가르치는 대상'이 아니라 '즐겁게 경험하는 문화'로 접근했다. AI를 활용한 포교 콘텐츠 제작, 토론과 서로 답을 찾도록 돕는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 대학생 멘토와의 만남 등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불교를 자신의 삶과 연결하도록 이끌었다.

2023년 권진영 교법사 기획 '선연'
청소년 불교 인재 키우는 新모델
170여 명 참가…출가자 15명 배출
AI·군승·상담 생애주기 포교 눈길

선연의 가장 큰 특징은 출가만을 목표로 삼지 않는다는 점이다. 학생들은 사찰과 대학, 군승, 스님, 대학생 선배들을 만나며 자연스럽게 인연을 맺는다. 절은 낯선 공간이 아니라 편안한 쉼터가 되고 불교는 삶 속 가치로 스며든다. 그렇게 쌓인 인연 가운데 일부는 스스로 출가를 발원한다.

실제 선연 1~6기 활동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참가자 가운데 다수가 동국대 불교학과 진학이나 군승 지원을 희망하고 있으며 상당수는 유발상좌로 신행을 이어가고 있다. 2025년 8월 기준 사미·사미니가 됐거나 출가를 준비 중인 청소년은 15명에 이른다. 동국대 재학생 사미와 고등학생 행자, 출가 예정자, 상담 중인 학생들이 포함되며 여성 출가 후보도 꾸준히 발굴되고 있다.

지난해 7월 동국대 정각원에서는 동국대 산하 학교 출신 학생 4명이 삭발식을 봉행하며 수행자의 길에 들어섰다. 종립학교에서 시작된 신행과 선연 활동, 출가 발원이 하나의 과정으로 이어진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종단 안팎에서 선연을 체험 프로그램을 넘어 미래 승가를 잇는 청소년 인재 양성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이유다.

이러한 변화는 학교 현장에서도 나타난다. 7월 13일 광주 정광고 진로박람회에서는 처음으로 '출가상담 부스'가 운영됐다. 스님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며 수행과 스님의 삶을 묻는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150여 명이 상담을 신청했다. 출가를 다양한 삶의 진로 가운데 하나로 자연스럽게 접하려는 청소년들의 관심을 확인한 자리였다.

선연은 전국 불교종립학교 학생들을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도 맡고 있다. 목표는 △동국대 불교학과 진학과 군승 자원 발굴 △출가 수행자와의 선연 맺기 △청년 불교지도자 양성 △생애주기별 전법 선순환 체계 구축이다.

권진영 교장은 "소년출가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인연이 쌓인 결과"라며 "학생들이 부처님을 좋아하는 청소년 한 명, 절을 편안한 공간으로 느끼는 청소년 한 명이 늘어날 때 그 이후의 길은 자연스럽게 열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연이 그런 좋은 인연을 이어주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I부터 군법사 만남까지
선연 7기, 미래 불교인재 키운다

7월 31일~8월 2일, 세종 영평사서
'마음의 지혜로 미래를 열다' 주제

청소년 불교인재 양성과 소년출가의 씨앗을 키워온 '선연(善緣)'이 올해도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을 만난다.

전국 불교종립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불교핵심인재계발 템플스테이 '선연'은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2박 3일간 세종 영평사에서 제7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올해 주제는 '아름다운 인연! 마음의 지혜로 미래를 열다!'다.

선연은 청소년과 불교계 진로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행과 진로 탐색을 함께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불교를 자연스럽게 체험하고 수행과 공동체 활동을 경험하면서 대학 불교동아리와 군승, 출가 수행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왔다.

올해 프로그램은 청년 세대의 관심사를 적극 반영했다.

첫째 날에는 '불교와 AI' 특강이 마련된다. 'AI 네이티브 세대, 마음의 지혜로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한 특강에 이어 생성형 AI를 활용해 불교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는 실습과 모둠별 발표를 진행하며, AI시대 불교의 역할과 전법 가능성을 함께 모색한다.

둘째 날에는 군법사와의 만남을 통해 군포교 현장을 살핀다. 또 불교 청년 창업가 특강에서 불교와 사회적 가치, 진로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 선지식과의 대화에서는 삶과 수행에 대한 질문을 나누고 질의응답을 이어갈 예정이다. 저녁에는 AI를 활용한 장엄등 제작 실습과 화합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마지막 날에는 청소년 K-명상과 커피명상, 불교 에니어그램, '마음 포트폴리오 만들기'를 통해 자신의 성향과 발원, 미래를 돌아본 뒤 회향식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번 선연은 기존의 예불과 108배, 명상 등 전통 수행에 AI 교육과 진로 탐색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참가자들은 수행과 디지털 기술을 함께 경험하며 불교적 가치관을 현대적으로 이해하고, 또래 불자들과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선연 관계자는 "불교를 통해 자신의 삶과 진로를 성찰하고 좋은 인연을 맺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청소년들이 미래 불교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소년출가, 미래 승가 키우는 첫걸음

만 13세 이상 19세 미만 대상으로
사찰 · 학교생활 함께…장학 혜택

소년출가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이끌 수행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조계종이 운영하는 제도다. 종단은 미래 불교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소년출가 특별법'을 마련하고 청소년들이 학업과 수행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소년출가 대상은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이다. 부모 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 종단에 등록한 뒤 지정 사찰에서 출가생활을 시작한다.

소년출가자는 출가 사찰에 상주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방과 후에는 사찰생활과 수행을 병행한다. 기본적인 염불과 예불, 사찰 예절을 익히고 방학에는 청소년 법회와 수련회 등에 참여하며 수행자로서의 소양을 쌓는다. 삭발과 복장은 종단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지난해 7월 11일 '동국대 산하 고등학교 출가자 삭발식'에서 준한 스님이 행자의 무명초를 자르고 있다.

소년출가자는 종법과 종령에서 정한 행자 교육과정이 면제된다. 사미·사미니계 수계 교육을 이수한 뒤 5급 승가고시에 합격하면 사미·사미니계를 수지한다. 이후 승가대학에 진학하면 우선 선발 대상이 되며 중앙승가대와 동국대 불교대학 등에 진학할 경우 등록금과 수업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소년출가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출가를 원하는 사찰 주지와 상담한 뒤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소속 교구본사를 거쳐 조계종 총무원 교육부에 등록하면 된다. 등록 이후에는 종단의 체계적인 교육과 지도를 받으며 수행과 학업을 이어가게 된다. 임은호 기자

"출가보다 먼저 불교의 가치 공감해야"

전시웅 가람고 교법사

"아이들에게 불교가 왜 필요한지 스스로 느끼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선연 담당 전시웅 가람고 교법사〈사진〉는 청소년 포교의 출발점을 '발심 이전의 공감'에서 찾았다. 출가는 제도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의 가치를 삶에서 체험한 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결심이라는 것이다.

전 교법사는 현재 학교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불교의 필요성을 공감시키는 일'을 꼽았다.

"요즘 학생들은 무엇이든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합니다. 명상이 좋다, 절에 가보자고 권하는 것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아요. 왜 그것이 내 삶에 필요한지를 먼저 공감해야 합니다."

이 같은 고민은 선연의 방향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종교교육을 넘어 학생들의 일상과 관심사를 불교와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올 여름방학에 진행될 선연 7기에서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을 불교적 관점에서 풀어내는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도 같은 이유다.

전 교법사는 "학생들이 불교를 시대에 뒤처진 것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관심사와 연결될 때 비로소 불교의 깊이 있는 가르침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포교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절에서 청소년을 기다리기보다 그들이 있는 곳으로 먼저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큰 호응을 얻은 서울국제불교박람회를 예로 들며 "사찰 문턱을 낮추고 누구나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마련했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자연스럽게 불교를 만날 수 있었다"며 "학교 역시 청소년들이 가장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했다.

전 교법사는 선연의 성과를 출가자 수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출가는 결과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의미 있게 만나는 경험입니다. 그런 인연이 쌓이다 보면 누군가는 출가를 선택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평생 불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청소년 포교를 '씨앗 심는 일'이라고 표현한 전 교법사는 "어떤 씨앗이 출가라는 꽃을 피울지 또 어떤 씨앗이 재가불자로 성장할지는 알 수 없지만, 좋은 인연을 심고 바르게 자라도록 돕는 것이 교육자의 역할"이라며 "선연도 인연을 만드는 과정으로 오래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